

'주민 중심' 도시재생 실현 집중

전주시, 사람 우선 시민생활 기반 강화 등 2대 중점 추진전략 전개

전주시가 주민 중심의 전주형 도시 재생을 실현하는데 집중기로 했다. 시는 올해 주민 지역 주도 전주형 도시재생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 주민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사람 우선의 시민생활 기반 강화 등 도시재생의 2대 중점 추진전략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이를 실현키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재생대학과 도시재생 포럼·세미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민 참여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등 도시재생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 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도시 재생위원회 등 지속 운영하고, 이를 통한 정책 홍보로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팔복동 추천마을과 교동 송암마을 일원에서 추진되는 새뜰마을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이곳 주민들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제공키로 했다.

또한, 성매매집결지인 권삼득로(선미촌) 일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등을 통해 △공동체 육성 △기반시설 공사 △문화예술복

합공간 조성 등을 집중 추진, 문화와 예술이 집진적으로 파고드는 장소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사업인 팔복예술공장과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진적 기능전환사업인 서노송예술촌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팔복예술공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현수 국토연구원 중앙부처 관계자와 광역·기초지자체장, 관련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현장활동가, 공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전북권)'을 개최했다. 또, 김승수 전 주시장은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도시재생 협치포럼의 공동대표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전주역세권 혁신성장 르네상스(중심사가지역) △용머리 남쪽 빛나 는 여의주마을(우리동네살리기)의 2

개 사업이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올해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2016년 선정된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창조적인 전주형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계획했다.

김양원 전주시장은 "전주형 도시 재생은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는 주민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사람우선의 시민생활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정책과 기조에 맞춘 도시재생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같은 발차기' 14일 우석대학교에서 전시모집 태권도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발차기를 하며 숨세를 뽐내고 있다.

'도박 빛 값싸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범 구속

도박 빛을 값싸기 위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사기극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완산경찰서는 1000만원 상당의 물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A모씨(31)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최근 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와 PC모니터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엉뚱한 물건을 택배로 보낸 뒤 송장번호를 알려주는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심을 피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모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긴 수천만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모씨의 동종 범죄 이력이 다수 확인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사죄한다더니'... 고준희양 암매장 피고인들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

은 국민을 공분케 했던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8)와 동거녀 이모씨(37), 이모씨 모친 김모씨(63)등 3명 모두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모씨와 이모씨, 김모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고모씨와 이모씨는 지난 2017년 4월

준희양(당시 5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다음 날 27일 김모씨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13일 완주군에 허위로 양육수당을 신청해 수당을 받고 같은 해 12월 8일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노력했다. 특히 고모씨는 암매장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립식 장난감을 자랑하고 가족 여행을 떠나 공분을 샀다.

고모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양에게 사죄한다.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었다. /강석훈 기자

길 가던 여학생 차에 태워 성추행한 30대 집행유예

길 가던 여학생을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5시 25분경 전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가던 B양(15)에게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석훈 기자

만성질환 관리, 동네 병원에서

전주시, 의사회·건보와 업무협약 체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은 앞으로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최근 전주시의사회·건강보험공단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해 통합한 사업모형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생활습관 교육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 △기존 수가 개선 △지역 자원 연계 인프라 구축 △성과 모니터링, 환류 등이다.

사업 운영은 전주시의사회가 맡게 되며, 전주시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의 역할로써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5년간 전주시건강동행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일차

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일례로, 지난해 총 95개소의 등록 의원(참여의원 61개소)은 1만9872명의 고혈압·당뇨 환자를 등록하고, 질병 관련 교육 5만15492건과 건강교육 5만7934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시한 1차 연도 사업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전주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며, "새로운 시범사업이 출범하는 만큼 세 기관이 협력해 고혈압, 당뇨환자에게 수준 높은 질적 서비스 제공과 전주시 만성질환자들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건강동행센터(063-255-1775)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학습소외계층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전주시평생학습관, 기관·단체 대상 지원사업 공모

전주시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과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 등 학습소외계층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오는 25일까지 학습필요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주시평생교육기관·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학습필요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100세 시대를 맞아 학습필요계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수양 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학습필요계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분야는 △평생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역아동센터·복지관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원 등으로, 시는 30개 기관을 선정해 10회씩 총 300회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30개 기관에 총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학습필요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공모 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또는 전주시평생학습관(e.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전주시평생학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 위생관리 실태를 15일부터 24일까지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관련 불법행위로 ▲유통기한 위·변조 ▲무허가 제조,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식품판매 업체 등 총 73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